

## 세이비어 교회 소식

1.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오늘 2부 예배 말씀은 이상복 목사(위싱턴 제일장로교회)께서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이상복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3. 2020 인구 센서스 세미나 안내  
주일 예배 후에 2020년 인구 센서스 세미나가 있습니다.  
(진행: KSC Census Team)
4. 전도회 모임 안내  
매월 둘째 주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5. 뉴욕 농아인 교회와 타마라 자매의 음악회 안내  
3월28일(토) 7:30 장소: Church On The Hill
6. 오늘 친교는 롱아일랜드 구역에서 준비합니다. 다음 주 친교는 베이사이드 구역에서 준비합니다.

## 3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03/01	섭	최태신	베이사이드	한순자
03/08	송명건	노마숙	플러싱	한순자

##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1. 언론에 연일 "개신교회가 주일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린다 고집하는 이유가 헌금, 즉 재정 수입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 글썄요, 언론이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데스크에 앉아 추측성 발언을 연달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헌금 때문이 아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 첫째, 교회의 재정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십일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일조는 한 두 주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안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십일조를 내 본 분은 알겠지만, 십일조를 내는 것은 어쩌다 마음이 동해서 하는 기부가 아닙니다. 신앙의 정기적인 실천으로, 매우 중요한 신앙적 결심을 이미 한 것이기에, 이번 주에 못 내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성도들의 수입이 줄어들면 십일 조 총액이 줄겠지만, 이것은 예배형태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튼 좀 줄어든 수는 있겠으나, 교회 문을 닫게 할 그런 종류의 일은 아닙니다.
4. 둘째, 코로나 사태로 주일예배를 영상/가정예배로 드리는 곳들은 대개 중대형 이상의 규모를 갖춘 교회들입니다. 감염확산이 염려가 되는 곳들이지요. 그런 교회들은, 헌금이 혹 줄어들까 염려가 안 되지는 않았지만, 한 두주로 인해 '결정적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혹시라도 감염이 발생한다면 입게 될 교회의 이미지 타격'이 훨씬 더 염려가 될 것입니다.
5. 또한 대형교회들은 대개 온라인헌금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배참석인원이 많으므로 현장에서 헌금하면 관리가 어렵기에, 이미 온라인으로 많이들 헌금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번에 예배를 취소하면서 돈 걱정이 되어 시스템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닌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연말정산 등을 위한 서류작성이 훨씬 더 쉬워지고, 교회재정의 투명성도 또한 더 수월하게 확보가 됩니다.
6. 사실, 개척교회를 비롯한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정말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배로 모이지 않게 되면 정말 실제적인 타격이 있게 됩니다. 대개 온라인 헌금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지요. 그런 교회들이야말로,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갖추고, 특정지역 방문자나 유증상자 등을 제외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7. 셋째,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교회들이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다른 형태로 대체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주일에 회집하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정체성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일에 교회예배당에 가는 것은 사실 신앙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을 신중하게 하려 하고, 꼼꼼히 성찰하려고 진중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형태로 예배를 전환하는 것은, 앞으로의 예배형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싶어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8. 어쩌다보니 교회를 변호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네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 주일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저의 입장은 지난번에 글로 올린 적이 있으니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재난상황에 대한 제한적 임시조치로서 가정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9. 이번 글에서는 다만 헌금 때문에 모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기사에 대하여 반론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말 헌금 줄어들까봐 벌벌 떨며 그것 때문에 코로나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주일예배를 고집하는 대형교회가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니, 저부터라도 나서서 비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10. 결론: 언론은 교회를 일단 비판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취재를 하여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김희석 교수(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부교수)

## 지난 주 헌금

\*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행사

3월 1일 - 2020 인구센서스 세미나, 전도회 회장단 모임, 교회 청소  
 3월 8일 - 전도회 모임  
 3월 10일 - PCA 봄노회

## 교회 지원단체

뉴욕 밀알 선교단, 주님의 식탁, 뉴욕 농아인 교회, 한밀교회

##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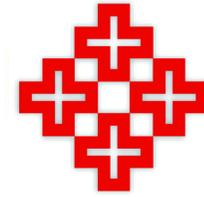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45-25 162nd St Flushing NY 11358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20년 3월 1일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 주일예배

	오전 9시30분(1부) 오전 11시(2부)	수요예배(8시PM)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b>경배와 찬양</b> 야고보서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기도: 최태신 권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16장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8번(시편 19편)	
찬 송 Hymn	457장	
기 도(Prayer)	송 섭 집사	
성 경 Scripture	열왕기하4장 1~7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b>믿음으로 삽시다</b> (이상복 목사)	<b>토요 새벽기도회</b>  고린도후서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헌 금 Offering	71장	
▲ 찬 송 Hymn	444장	
▲ 축 도 Benediction	이상복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